생성의 지점

나의 작업은 고요한 바닥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이 바닥은 비어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시간이 스며들어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받아들이게 될 장이다. 나는 캔버스를 단순한 지지체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 재료, 몸의 행위가 만나고 축적되며 결국 스스로를 드러내는 살아 있는 표면이다.

작업은 반복을 통해 구축된다. 물감과 한지, 그리고 다양한 혼합 재료들은 천천히 쌓인다. 각 레이어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를 위한 덧입힘이 아니라, 하나의 순간과 조건, 결정의 흔적을 품고 있다. 한 층은 다음 층과 만나며 서로 영향을 주고, 흡수하고, 밀어내고, 저항한다. 그 과정 속에서 화면은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형성 중인 사건이 된다.

표면이 두꺼워지고 밀도가 생길수록 내부에는 압력이 축적된다. 처음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 이 압력은 화면 안에 잠재된 긴장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표면은 더 이상 그 힘을 온전히 붙들 수 없게 된다. 그때 화면은 열린다. 그리고 균열이 생긴다. 나에게 이 균열은 손상이나 실패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에 머물러 있던 에너지가 외부로 드러나는 생성의 순간이다.

나는 균열을 파괴의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드러남의 구조이며, 보이지 않던 것이 형태를 가지는 통로이다. 균열은 단지 표면의 질감이 아니라 문턱이다. 안쪽에 있던 긴장이 바깥의 형상으로 넘어오는 지점이며, 잠재성이 현존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래서 내 작업은 끝남보다는 생성, 붕괴보다는 출현에 더 가까이 있다.

이 과정은 완전히 통제되지 않는다. 나는 회화를 자연과의 협업으로 이해한다. 작업의 조건은 내가 만든다. 나는 레이어의 밀도, 화면의 리듬, 여백과 덩어리의 비율, 물질의 긴장을 조율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변화는 오직 내 의지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습도, 온도, 중력, 증발, 그리고 시간 자체가 작업 과정에 개입한다. 내가 자주 말하듯, 약 70퍼센트는 구조화된 의도이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자연에 맡겨진다.

이러한 위임은 수동성이 아니다. 그것은 재료의 지성과 자연의 논리를 신뢰하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작품은 계획과 우연, 절제와 생명력 사이에서 균형을 갖게 된다. 나는 작업을 특정한 감각과 공간으로 이끌어 가지만, 모든 결과를 미리 닫아두지는 않는다. 그 틈이 있기에 작업은 살아 있게 되고, 단순한 재현이나 설명을 넘어서게 된다.

최근 작업들 속 형태는 바위나 지형의 파편처럼 보이기도 하고, 씨앗이나 세포, 혹은 생명체의 몸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나는 이런 모호한 상태에 끌린다. 왜냐하면 그 모호함 안에서 정지와 움직임, 무게와 변형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상은 아주 오래된 시간에 의해 다듬어진 듯 보이지만, 동시에 아직 다른 상태로 변해 가는 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이중성은 물질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억과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 보는 나의 태도와 연결된다.

이러한 형태만큼 중요한 것이 그 주변의 여백이다. 내 작업에서 여백은 결코 수동적인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침묵이 작동하는 능동적인 장이며, 물질이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나는 한국 미학의 중요한 개념인 여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여백은 부족함이 아니라 가능성의 공간이며, 남겨진 비어 있음 속에서 더 큰 울림이 발생한다. 화면이 설명하지 않는 만큼, 관람자는 그 안에서 더 깊게 머무를 수 있다.

색 또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나는 색을 장식적인 표면 효과나 단순한 감정 기호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에게 색은 밀도이다. 단색처럼 보이는 화면 안에도 수많은 톤과 재료의 층이 들어 있다. 검정은 하나의 검정이 아니고, 흰색 역시 하나의 흰색이 아니다. 각각의 색면 안에는 시간의 축적, 압력의 흔적, 공기의 결이 스며 있다. 이 미세한 차이들은 서사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도, 감정과 물질의 무게를 전달한다.

최근 작업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설명하기보다 하나의 상태를 제안한다. 그것은 에너지가 어떻게 보이게 되는가, 시간이 어떻게 물질로 남는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밀도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나는 관람자가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화면과 더 느린 속도로 마주하길 바란다. 그때 작품은 압력, 인내, 위임, 시간이 함께 만들어낸 하나의 사건으로 감각될 수 있다.

결국 생성의 지점은 문턱의 이름이다. 보이지 않던 것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 내부의 것이 형태를 얻는 순간, 물질이 자신 안에 저장된 시간을 드러내는 순간을 가리킨다. 내 작업은 파괴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드러남과 지속, 그리고 생성에 대해 말한다. 반복, 레이어, 균열, 여백을 통해 나는 고요함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고요함 안에는 시간과 기억, 그리고 출현의 힘이 들어 있다.

생성의 지점, Summary

이 작업은 시간과 물질의 축적을 통해 형성되는 내부 에너지를 탐구한다. 반복적인 레이어와 재료의 상호작용 속에서 화면은 하나의 사건으로 생성되며, 균열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순간이다. 균열은 파괴가 아니라 생성의 지점이며,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작업은 자연과의 협업 속에서 이루어지며, 통제와 위임 사이의 균형을 통해 살아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여백은 침묵이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물질의 밀도를 강화하고, 색은 표면이 아니라 깊이를 지닌 존재로 작용한다. 결국 이 작업은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는 순간,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